|  |  |  |
| --- | --- | --- |
| EMB00000e5c3d1e |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보도자료 | **25** |
| 2012. 6. 1(금) |
| Press Center 전화 (064) 780-8471 / 팩스 (064) 780-8466 | | |

세계화시대 새로운 동아시아의 역사교육의 과제Ⅰ

동아시아 지역 인식과 역사교육의 역할

**○ 역할 참가자**

**사회 :** 정재정 (CHUNG Jae-jeong)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발표 :** 유용태 (YU Yongtae) 서울대학교 교수

판광저 (PAN Kuang-che)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연구원

미야케 아키마사 (Miyake Akimasa) 일본 지바대학교 교수

안병우 (AHN Byung-woo) 한신대학교 교수

**○ 핵심 사항(Key Points)**

- 일반용 교양서로서의 동아시아사 출간: 비교기준은 제국성, 자국이 다른 나라와 벌인 전쟁, 동아시아 서술이 진전되고 있지만 온도차가 보임

- 역사적 경험과 민주화와는 정비례, 제국성에 대한 경험과는 반비례

진전된 정도는 한국>일본>중국, 토론거리임

- 신내셔널리즘 충격에 대응하는 노력의 일환이 동아시아사 교과서 발간

교과서가 국제화되고 연계되고 있음

생산적인 대안 제시의 일환으로 출현

- 자국사 위주의 교육은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나

동아시아사의 지역을 유연하게 해야 함

고대부터 현대까지 일관된 체제에서 통사에서 벗어나야 함

- 근대에 들어오는 시점에서 공통의 텍스트들이 있었음

세계인식의 틀을 만들어가는데 공통의 교재가 있었음

* 엊그제 동아시아사 공통교재\_ 두 권의 책으로 묶어나옴

**○ 발표자, 토론자별 발언내용**

**▲ 사회**

: 한국의 동아시아사 교과서에 대한 얘기, 일국사를 뛰어넘는 동아시아사가 가능한지, 평화와 번영이라는 것에 과연 역사학 역사교육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염두에 두고 발제를 부탁함

**▲ 유용태 교수 발표요지**

- 근래 한중일 3국에서 일반독자를 대상으로 한 ‘동아시아사’ 저술이 출간됨

三谷博(외) 編,《大人のための近現代史: 19世紀編》(東京大學出版會, 2009)

柳鏞泰(외),《함께 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1⋅2(창비, 2010/2011)

楊軍⋅張乃和 主編,《東亞史》(長春出版社, 2006, 24인 공저)

* 전면적으로 다루기는 곤란, 자국의 제국성을 성찰하는 점을 기준으로 동아시아사 서술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고자 함

(제국성은 자국의 군대를 해외에 파견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함)

=일본에서 나온 책은 러시아의 위협이 집중적으로 부각됨

역내 상호관계보다는 구미국가와의 상호관계가 더 주력함

* 성과

유구병합이라는 용어를 써서 국가간의 병합이라는 점을 명시함

유구는 식민지화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함

운양호 사건 당시에 일본군부가 고의로 전투를 그만두면서 허위보고함

* 한계 : 자기성찰과 상반되는 시각이 많이 있음

지도자의 현명한 판단에서 일본의 성공요인을 찾는 사례

일본의 개국결정에 미친 2차 아편전쟁의 영향 등이 간과됨

청의 군비강화와 러시아의 진출 등 강조, 조선에 대한 정벌 의도는 강화도조약 이후에 사라진 것으로 서술함

유구와 북해도 병합을 식민화과정이라고 보면서도 제국화라고 설명하지 않음

메이지시기는 문명화 쇼와시기는 제국화로 보는 인식의 괴리

=중국에서 나온 책의 경우

-- 진전된 사례

조공책봉관계를 하나의 중심으로 하는 복수의 조공체제를 형성해서 중층적인

환상구조를 만들어냈다고 봄, 이전의 정치적 성격에서 명청시기에는 경제적

성격이 강화된 것으로 봄

항미원조전쟁에 대해 남한과 미국을 침략자라고 하는 서술도 보이지 않음

-- 한계

1884년부터 조공체제가 붕괴됨. 그전에는 평화상태라고 봄

서구열강이 도래했을 때 중국은 종주국 지위를 주저하지 않고 포기했다고 씀

중국의 서부팽창\_ 건륭제의 전쟁은 치적이고 성세의 치적으로만 인식함

양무운동으로 청조의 군사력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조선에 대한 속방화가

추진된 사정에 대해서도 주목하지 않음

중국의 동아시아사는 베트남전쟁 시기에 연인원 32만명을 파병함 파병사실을

일체 언급하지 않음. 프랑스와 미국을 침략자로 규정함, 이런 명분있는

전쟁참전에 대해 일체 함구. 한국전쟁은 내전이라고 인식, 이렇게 명분이

훨씬 약한 전쟁 참전은 서술함

=한국에서 나온 책의 경우

--한국군 베트남 파병을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으로 평가

자유를 위한 성전이라는 냉전 시기의 인식에서 벗어난 서술

대통령의 사과를 양국간 역사화해의 출발점으로 인식함

==결론:

자국사와는 다른 동아시아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일부 서술을 하기 시작함

동아시아지역사의 가능성을 보여줌

-제국사에 대한 성찰에는 차이가 있음

제국성의 경험과 반비례, 민주화의 정도에 정비례

자국사에 대한 성찰에 달림

**▲ 안병우 교수 발표**

- 동아시아사 교과서 발간 결정은 2006년 12월

2012년 3월부터 동아시아지역에서 처음으로 고교에서 동아시아사 교과서 사용

이는 아직 평가 단계는 아님

=동아시아사 교과서 발간 배경은 2001년도에 ‘새역모’후쇼샤에서 검정 통과가

계기가 됨, 역사학계에 대단히 큰 충격을 줌. 여기에 중국의 동북공정이 시작

되어 또 충격을 줌

-역사갈들은 동아시아공동체 추진에도 걸림돌

-동아시아 역사갈등을 전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됨

-역사갈등의 중요한 원인은 자국사 중심으로 가르치는 데 있음

=첫 번째로 직면한 문제는 방대한 동아시아를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

-깊게 연관된 주제를 뽑아서 가르치는 방법, 25개 주제를 선정함

-일국사의 관점을 넘어서는 시도함

-동북아역사재단의 협조로 집필안내서, 교육과정해설서, 참고자료집을

만들었음

-채택 학교는 509개, 대상학생은 7만 3천 명 22%, 학생수는 10%남짓

=동아시아사 교과서 2개본에는 체제상의 큰 차이는 없음

소단원 설정에는 현격한 차이를 보임

연표는 다같이 제시함

=서술상에서 크고 작은 차이는 상당히 많은 곳에서 발견됨

=목표를 잘 달성하려고 하면 교과서가 잘 만들어야 져야 함

-각국사를 병렬적으로 서술하는 경우도 많이 보임

-용어 차이 : 임진왜란/임진전쟁 병자호란/정묘전쟁

편수용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교사들의 능력 향상: 좋은 교과서와 연수 계속

-다양한 형태의 교재를 개발해서 제공해야 : 맞춤형 교사연수

-대학에서 역사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도 동아시아사를 가르쳐야 함

연구가 좀더 심화되어 함

**▲ 미야케 교수의 발표**

-동경서적의 대표집필자, 동아시아사 기억과 역사 10년 진행함

-외국인 연구진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음, 일본인이 7명, 외국이 10명

= 한국사, 일본사, 중국사를 그만둬야 하지 않나

현재의 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세 가지점

=중등교육에서 동아사 개설에 기본적으로 찬성함

-고대부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싱가폴의 역사교과서 : 고대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설명함

-동아시아를 너무 고전적으로 생각해선 안됨 매우 정치적인 개념임

- 1880년대 1890년대에 일본교육당국이 ‘동아’라는 말을 만들었음.

동아시아라는 설정은 뭔가 생각하기 위한 정치적인 것

-통사라는 말이 영어로는 표현하기 힘든 말임

통사에서 역사라는 의미로 바뀌어야 할 것

=현재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함

문부성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음

**▲ 판 연구원 발표요지**

= 현재 내셔널 히스토리를 벗어난 연구를 하기가 어려움

동아시아에서 공유했던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

-세계의 역사와 지리\_ 국제법에 관한 지식들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유통되고 어떤 현상을 일으켰는지 설명

선교사, 지식인들이 함께 만들어낸 커먼 텍스트로 교류함

=<해국도지>, <영환지략> 은 조선과 일본에 영향을 줌

기독교 선교사들, 마틴 선교사가 1864년에 만국공법을 출간 동아시아에

큰 반향을 일으킴

\* 지식인들이 커먼 택스트를 읽고 지식을 쌓아나갈 수 있음

자국의 포지셔닝이 크게 바뀜 \_중국이 세계중심이 아니라 많은 나라 중의 하나

실용적인 지식이었음\_

만국공법은 서양국가들과 교류하는 데서 교류의 기반이 됨

\* 만국공법을 인용해서 행위규범을 정함

\* 지식의 공통텍스트를 통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행동함

각국의 개혁에도 큰 영향을 미침

일본에서 생산된 커먼 텍스트들이 큰 영향을 끼침

근대동아시아 새로운 이해의 기반을 제공할 것

\*\* 타이완은 일본, 한국과는 입장이 다름

역사학만 연구함 1) 중국사, 2) 세계사

전통중국, 대만사가 유행함

-동아시아에 대한 인식이 다름... 동아시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않음

동아시아아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타이완 사범대학의 동아시아학과는 5년 정도 젊은 학과

=외재적인 관념의 영향을 받음:

1. 서양에 대한 관점\_ 식민지적 근대화에 많은 관심

2) 일본의 영향. 기본적으로 그들의 서적을 소개하는 정도에 불과함